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인가?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하여-*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전요섭 (Joseph Jeo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identification and role of military chaplains as a counselor. Chaplains were emphasized in their roles as counselors in addition to their role as officers and pastors.

(1) There is a growing trend in the US military to emphasize the counseling role of chaplains as religious liaison officer. While the role of chaplains between the US military and the Korean military differs significantly, but Korean military chaplains should also be capable to taking charge of civil affairs related to religion as counseling experts with more expertise in civil affairs. (2) It has been revealed that chaplains, as counseling specialists for psycho-spiritual therapy, play a crucial role in resolving the psycho-spiritual issues of soldiers. (3) As counselors for evangelism, chaplains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agents of evangelism, so they should seize opportunities in counseling to fulfill their pastoral calling, engage in evangelism, and the ministry of salvation.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need to further strengthen CPE as a means to enhance the counseling capabilities of chaplains. The researcher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training. There was a proposal to support chaplains in acquiring counseling-related qualifications similar to the approach in the US military by providing support for obtaining counseling credentials during their active duty.

Key words: military chaplain, Christian counseling, pastoral counseling, military counseling, mental health, U.S. military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1일 최종수정, 9월 4일 게재확정.

** 성결대학교(SungKyul University) 파이테이아(교양교육)학부 교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 중생관 507호실, jeon8182@gmail.com

I. 여는 글

군종목사는 전쟁/전투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투요원은 아니지만 고대로부터 전쟁/전투와 긴밀한 동반관계를 유지해왔다(Mendenhall, 2009: 8-13). 군종목사 제도가 비교적 일찍 정착되었던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전쟁/전투를 겪으면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임무를 발전시켜왔다. 군종목사 고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임무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 기도로 대표되는 종교(목회)활동이다. 하지만 현대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종교적 지원만 하는 전통적인(목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넘어 군으로부터 더욱 확장된 역할과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군종목사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직 목회돌봄(예배와 설교, 기도 등)이라는 영적 활동만 하는 것은 사실상 군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군종목사는 군에서 자신의 종교/종파의 선교/전도/포교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빙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Stahl, 2917: 236).

특히, 근래 군종목사의 역할 특징으로는 어느 국가이든 심리정서적 차원의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Grace Davie(2015: 39-53)는 어느 국가의 군종목사이든 현대 군종목사는 심리정서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과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진술하면서 군종목사의 심리정서적 기능을 상담으로 이해하고 이를 강조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근현대에 발생한 전쟁/전투들을 분석해 볼 때,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받아왔고, 또 이에 부응하여 상당히 기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Seddon et al, 2011: 1357-61). 미군의 경우에는 군종목사에게 점차 증가하고 광범위해지는 장병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에 없던 종교연락장교로서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군대에서 군종목사에게 전통적인 목회돌봄의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더하여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하여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범주의 확장과 기능강화는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각이 있는가 하면, 군종목사의 본질적인 역할을 희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일각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종목사가 군에서 다양한 상담자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연 ‘군종목사는 어떤 상담자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미군 군종목사의 역할과 그들의 활동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의 상담적 기능과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을 다루면서 역할 내의 역할 갈등, 심리영적

치유상담자로서 군종목사, 복음전도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를 살펴보고,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II.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

대한민국 군종목사의 고유업무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업무로서 이는 군종제도가 창설되었을 때부터 군이 군종목사에게 요구해 온 업무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임무는 종교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활동도 공히 힘써야 할 주요업무인 것은 틀림없으나 종교활동과 대등한 가치로 인식되거나, 대등한 비율의 활동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종목사의 상담업무가 강조되고, 장병들을 상담하는 일이 군종목사에게 중요한 일로 강조되고 있더라도 위 네 가지 고유업무에 굳이 다섯 번째로 상담업무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상담업무가 네 가지 고유업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의 범주에서는 신앙상담, 전도상담 등 다양한 목회상담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활동에서도 전입신병상담 등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도활동에서는 관심장병상담, 수감자상담, 환자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대민업무에서는 미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종교연락장교’(liaison office)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즉 교단 책임자와 군종활동지원 및 정책관련상담, 지역 종교지도자들과 중무협조상담, 향토사단에서는 향군종상담 등을 원활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종목사의 상담 기능을 더욱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종목사를 일컬어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목사이며 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미군의 경우에 군종목사는 소속교단에서 군에 파송한 목사임과 동시에 국방부와 각군에 소속된 군인/장교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더하여, ‘상담자’라는 세 번째 정체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다(Davie, 2015: 39-53). 그래서 군종목사는 목사, 장교, 상담사라는 삼중적 지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장병들에게도 제3의 정체성인 ‘상담사’로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Norton, 2015: 21-39).

1.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역할 내의 역할 갈등

Davie(2015, 39-53)는 군종목사의 역할을 구성하는 다양한 업무와 업무 간의 서로 호환되는 정도의 문제를 일컬어 ‘역할 내 역할’(the roles within the role) 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상담자의 역할도 군종목사의 주요업무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할 내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군인교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신앙상담은 목회돌봄의 본질이기도 하며, 목회의 의미 및 당위성이라 표현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동일한 군종목사의 상담이라 할지라도 이단 장병상담, 복무부적응 장병상담, 수감자상담, 환자상담, 포로상담, 지역 종교지도자들과의 종무상담, 지원국/주둔지 군종장교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상담 등 상담의 범주가 넓어지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업무 가중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역할도 군종목사가 해야 하는가?’ 하는 역할 내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군에서 군종목사의 상담은 장병의 문제를 치료, 치유, 회복, 변화를 통해 사고예방 및 사기진작, 재발방지, 전투력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군이 상담활동의 범주를 넓히고 군종목사에게 전문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군종목사에게 부과하는 상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상당한 지식과 기법이 필요한 것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Phillips, 2004: 47-58). 그 이유는 군종목사가 담당해야 할 상담의 범주가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광범위해지고, 더욱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군종목사의 고유업무인 종교활동은 대부분 집단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는 편이다. 설교하는 것, 기도해주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성례를 집행하는 것, 축도 등이 그러한 사역이다. 하지만 상담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양방적인 차원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장병)를 개인적으로 만나 문제를 경청해야 하고, 심리영적 문제를 직면시켜야 하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어야 하고, 문제분석을 위해 기법이 발휘된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고, 상담내용을 분석,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심리영적 기술과 기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돌봄은 예배, 설교, 성찬, 기도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Harrison, 2017: 22).

특히, 미군의 경우, 역할 내 역할 갈등은 우리나라 군종목사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군종업무 가운데 일부는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하고, 점차 세분화되고, 특수화되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미군은 2009년 11월 군종목사에게 공식적으로 종교연락장교 역할을 주문하게 되었다.¹ ‘종교연락장교’(religion liaison office)라 함은 군종장교 가운데 ‘종교연락장교’라는 직책(보직)을 부여하여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종목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국가에 파병된 미군이 주둔지에서

1) 본디, ‘연락장교’라는 의미는 둘 이상의 조직(국가)이 공식적으로 연락 창구를 두어 소통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연락을 담당하는 장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는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발생시 중재, 갈등해소, 충돌 해소 및 완화, 협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군에는 연락장교라는 직책이 있기도 하고, 정책부서에서는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 단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에는 ‘연락장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무에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활동을 수행할 때, 지역의 무슬림 주민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충돌 없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대가 어떤 작전을 수립하고, 해당지역 종교에 장병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교를 전담하고, 지휘관에게 종교관련 참모조언을 담당하는 군종목사가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종교연락장교의 역할은 파병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종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 갈등, 위협, 충돌 등을 해소하고 지역 및 지역주민 안정화를 꾀하는 군종목사의 확장된 협상적, 설득적, 교육적, 상담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Gutkowski & Wilkes, 2011: 111-24).

이런 종교연락장교의 업무는 한국군 군종목사에게도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를 ‘대민업무’라 한다. 하지만 현재 군에 규정된 대민업무에 더하여 새롭게 확장되고, 구체적인 요구를 군종목사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평시에 대민업무가 심각한 역할 내 역할 갈등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파병부대 군종목사에게는 미군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종교연락장교 업무는 이해, 설득, 타협, 조정 등 거의 외교적인 일이고, 협상가에 가까운 상당한 상담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심리상담이나 영적 상담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상담업무라 할 수 있다.

‘상담’ 자체는 군종병과 뿐만 아니라 군의 모든 병과에 요구되는 업무라 할 수는 없는데, 이에 종교관련 상담일 경우에는 그 담당부서가 군종병과이며 군종목사의 임무이다. 이를테면 ‘교육’도 군의 모든 병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 등은 주로 공보정훈병과와 그 장교들의 고유업무이지만 종교관련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응당히 군종업무로 보아야 한다.

지역주민과 종교, 지역종교지도자, 정부조직 및 비정부조직, 민간 자발조직 등과 종교문제의 협력, 협상, 설득, 교육, 상담을 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확장된 전문가 역할에 대해서 군종목사는 딜레마로 이해하고 당황할 수도 있다. 종교연락장교로서 효과적인 참모역할의 공식화는 군종목사로 하여금 더욱 업무의 긴장도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역할은 일선 여단(연대)에 근무하는 군종목사보다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군종목사의 임무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의 경우, 향토사단에 근무하는 군종부 군종장교(목사, 신부, 법사, 교무)는 지역 종교지도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종교연락장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파병 미군 군종목사는 내부적으로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에 주력하지만 대부분 이슬람권에 주둔하므로 종교연락장교 역할을 수행해야~~나~~므로 더욱 긴장되고 업무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 이슬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군 군종 이맘(Imam: 무슬림 군종장교)의 종교연락장교 역할은 수니파, 시아파의 종파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무슬림이라는 동질적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큰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군종목사의 이런 역할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해외 파병 부대 종교연락장교 업무는 종교와 관련하여 지역 평화, 인도주의적 관계개선, 종교갈등 해소 및 화해 구축 등의 미명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군의 군종목사가 여러 무슬림 지역에서 수행하는 민사임무(군종장교의 종교적 차이, 언어적 한계, 문화적 갈등, 지역파악 정보부족, 분쟁지역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반미 인식감소, 지역주민과의 종교갈등 해소 및 화해 구축, 주둔지 종교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및 협상의 상담에 성공하고, 군에 기여했다는 보고들이 많다(Gutkowski & Wilkes, 2011: 111-24). 이런 확장된 업무와 역할로 인해 군종병과가 국가 및 군의 군사적, 전략적,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군 군종목사 중령 Lee(2005: 1) 등은 “미군에서 군종목사는 군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군에는 아직 이런 역할 확장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대한민국 군종목사의 경우에도 평화유지군에서 이와 같은 업무요구가 아직 강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능력 향상은 언제라도 강력하게 요구받을 수 있는 업무임에는 분명하다. 평시에는 주둔지 지역종교지도자와의 원활한 관계유지가 요구되며, 전시에는 점령지 주민과 민간종교단체와의 충돌 및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상담자 역할수행이 요구되므로 이에 적절한 지침이 교리화되어 교범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

어떤 사회에서나 정신건강 문제는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군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군은 통제된 사회이며, 불안, 공포가 팽배해 있는 극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젊은이들의 정신력이 더욱 강해지거나 아니면 부적응이 발생하여 문제상황이 될 수 있다. 군인은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이 잘못될 때,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군이 비전투손실을 막기 위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병들의 급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 전문인력(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방부 훈령 제1818호 제4장 제18조[임무] 1.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부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 채용에 대한 국방부 훈령도 있었다. 군이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군종목사의 고유업무에 상담기능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Saunders, 2023: 133-135).

군에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여기서 ‘불충분’이라는 의미는 그 인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장병들에 대하여 영적 지지, 영적 치료 등 영적 접근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군 군종목사는 모든 군사환경에서 미군에 복무하는 인원에 대하여 영적 지원(spiritual support)을 하는 특수목회자로 인정되고 있다(Patterson, 2014: 19). 군의 모든 활동이 전투력 증강에 있다고 볼 때, 군종목사가 장병들이 겪고 있는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 해결해줌으로써 무형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군의 요구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모든 군사환경에서 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시는 모든 군사환경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위기상황이므로 장병들을 위해 더욱 충분한 그리고 독특한 영적 자원(spiritual resource)을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이 담대하게 전쟁/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Whitt, 2014: 2). 군종목사가 ‘장병들을 위해 영적 자원을 지원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종교유무에 관련없이 대략 64%의 장병들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et al, 2023: 56-65). 하지만 일부 장병들은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에서 기독교 신앙, 즉 영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은 군종목사가 제공하는 심리영적 상담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군종목사와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장병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Eleonoli, 2007: 54-65).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심리정서적 증상을 막거나 치료, 회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군종목사와 상담하는 것을 거리길 수도 있을 것이다(Koenig, 2012: 1-11). 이런 경우, 종교가 없거나 다르거나, 심리영적 지지를 거부하는 장병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병들에게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접근은 매우 반가운 일일 수 있다.

군종목사가 활용할 ‘영적 자원’은 이른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라 하는 예배, 설교, 세례와 성찬, 기도(안수기도, 회개기도), 심방, 상담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은 장병들로 하여금 전의를 다지고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심리정서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병들에게 기도해주는 것이 웬만한 정신건강 증진행위보다 더 나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장병들이 예배와 설교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규범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규범적인 행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되며, 기독교 신앙의 사고예방, 비전투손실예방, 무형전력 증진 등 신앙전력효과

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Mason, 2014: 179). 종교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Carson, 2018: 64-65).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장병들의 자기 규제 및 자기 통제를 촉진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군인교회에 출석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Marty Mendenhall(2009: 8-13)은 장병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신건강전문가들의 67%는 영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함으로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무능’이라는 표현은 군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다소 폄하하는 의미의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해 Denise C. Cooper(2023: 56-65)는 그와 유사하게 군에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들도 영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거의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분야에서는 장병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군종목사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영적 문제가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모든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군종목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적을 사살한 후, 또는 동료가 적에 사살된 후, 그 장면을 목격한 장병들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심리정서적인 충격만이 아니다. 특히 신자장병에게 있어서 심리정서적 트라우마는 동시에 영적 트라우마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죄의 행위가 단지 법률적 위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도덕적 손상, 심리정서적 손상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죄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벌하신다는 두려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재앙적 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 등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Guy Harrison(2013: 34)은 이를 ‘soul pain’(영혼의 통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담자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영적 고통은 누구보다도 군종목사가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죄책감과 용서, 사죄의 확신, 죽음불안과 공포 및 내세의 문제와 같은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 장병들이 겪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군종목사는 군의관이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은혜의 방안을 통한 목회돌봄의 차원에서 심리영적 상담을 제공한다(Allen, Nieuwsma & Meador, 2014: 1-11). 따라서 군종목사의 상담은 심리정서적 접근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영적이어서만도 안 되며, 심리영적인 접근이어야 하는데, 이는 군종목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기능이다. 미국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는 장병들의 건강에는 심리영적 건강을 더 나은 전인적 건강으로 이해하여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Cooper, 2023: 56-65). 군종목사는 심리영적인 문제를 치료, 치유, 회복하는 업무수행을 강하게 요구받아왔으며, 좀 더 ‘숙련된 영적 돌봄’(skilled spiritual care)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Mendenhall, 2009:

8-13).

바그다드에 주둔했던 미군 군종목사 Henry Beaulieu는 ‘새벽 2시쯤에 동료병사 가운데 한 명이 적의 총탄을 맞고 죽거나 폭파되는 악몽을 반복하여 꾸는 증상’으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종목사인 자신을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Davie, 2015: 39-53). 군종목사는 이런 장병들에게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치료와 치유를 위한 기도로 심리영적 안정을 갖도록 하고,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며, 의미 재구성에 대한 상담으로 치유하는 특화된 존재이다.

신체와 심리가 연결되어 있고, 심리와 영 그리고 영과 신체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한 개념이다. 그래서 ‘심신상관’(心身相關)이라는 용어와 의학용어 ‘PNI & E’(Psychology, Neurology, Immunology & Endocrinology)는 영이 강조된 ‘영심신상관’(靈心身相關), ‘SPNI & E’(Spirituality, Psychology, Neurology, Immunology & Endocrinology)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영적인 문제의 상관관계는 개념상 소홀히 여겨진 것이 사실이며, 심리와 영에 대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하나는 심리학, 심리치료 및 정신의학의 영역으로, 또 하나는 종교적, 신학 및 영적 치료의 분야로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적 개념은 심리적인 것과 별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영적 분야에서는 심리를, 심리영역에서는 영적 영역을 배제하거나 소외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인(全人)을 고려한다면 이 둘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한다.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다루는 것을 일컬어 ‘심리영적’(psycho-spiritual)이라 하며, 이는 전인건강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과제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및 심리상담전문가의 독단적인 활동은 장병들의 전인건강 차원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장병들의 진정한 전인건강을 추구한다면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접근을 결코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계/통합 프로그램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

통합병원 및 야전병원에서 또는 군 상담전문가들과 연계/통합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Cooper(Cooper, 2023: 56-65)는 미 해군에서 군종목사와 군 정신건강전문가(군의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간호사, 심리치료사 등)가 함께 4주간 실시한 연계/통합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 해군에서 작전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해군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종목사와 군 정신건강전문가가 연계/통합하여 상담 및 심리영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군종목사는 군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기도, 안수기도, 고백, 회개, 용서, 사죄의 확신, 화해, 슬픔에 대한 의미 재구성, 죄책감 해소, 소망 등을 다루었을 때, 치료가 촉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계/통합 프로그램은 치료에 있어서 이른바 ‘전인

적’(wholistic), ‘통합된’(unified), ‘연계된’(collaboration) 접근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Harrison(2017: 22)은 군종목사의 이런 역할을 ‘medical ministry’(의료 목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역의 특수성을 표현한 바 있다. 군종목사는 다른 정신건강전문가와 더 많은 협력체계 하에 전인 건강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개입은 분명한 증상 감소와 회복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흔히 발견된다.

심리영적 차원의 연계/통합모형을 활용한 군대 보건의료지원체계는 전인치유를 위해 향후 더욱 발전해야 할 분야로서 전문화, 특성화되어야 하며, 긴급히 체계화시켜야 할 분야이며,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이런 협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군종실 및 각군 본부 군종실에서 다양한 심리영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면밀히 다루고, 교리화된 교범(field manual)이 마련되어야 한다.

Davie(2015: 39-53)는 군종목사의 정체성을 논할 때, ‘사역의 존재’(being of ministry)라는 정체성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사역’(ministry of being)이라는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전투 현장에서 장병에게 베풀어지는 사역의 집행자로서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투현장이나 죽음의 현장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장병들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ministry of being)로서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유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군에서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개념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영국군 군종정책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으로서 영국이 치른 전쟁/전투를 반추, 분석하여 전시 군종활동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종목사의 안전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전투지역에 군종목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후방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전선에서 죽음에 임박한 장병들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의 사역자로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Davie, 2015: 39-53).

Harrison(2017: 22)은 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군종목사’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 군종목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인식에는 군종목사가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단서가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가 주둔지에 장병들과 함께 있어줌으로써 장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여 우울 및 불안과 공포 등 두려움과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해군의 경우, 함선에 군종목사가 승선함으로써 수병들이 갖는 심리영적 안정감이 크다는 경험적 진술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Davie(2015: 39-53)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국 전투작전을 회고한 영국의 한 사령관의 진술을 인용하여 군종목사의 상담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전투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 불

안과 공포, 우울, 슬픔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정서를 다룰 수 있는 장교가 군종목사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군종목사 없이는 장병들을 전투작전에 투입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여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는 한국군 상황이라 하여 다른 양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이 어떤 이유에서 군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down sizing)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고예방, 사기진작, 군 전투력 유지 및 증강,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여 대대급 부대에서 수시로 장병들의 눈에 띄고, 간략하나마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이전인 1991년 군내 기독교신자가 4%였었는데, 전쟁 중에는 75-80%로 증가한 것을 보면 “참호 속의 무신론자는 없다.”(no atheist in a foxhole)는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통계를 볼 수 있다(Chaika & Dragan, 2022: 213-29. 우크라이나는 2006년에야 군종 제도가 시행되어 215명의 군종목사가 복무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불안, 공포상황은 장병들로 하여금 종교적 민감성을 갖게 하여, 종교를 갖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하여 전쟁 중 무신론자 장병들이 모두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신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군종목사의 전도상담은 대리적 신앙에서 직접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불안과 공포는 신앙을 갖기에 좋은 심리영적 토양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에서 군종목사는 상담을 통해 장병들에게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하는 상담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긴장의 상황’(the angle of eschatological tension)으로 설명된다(Davie, 2015: 39-53). 이 용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신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종말론적 긴장의 상황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본질적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역사적, 우주적 종말개념보다는 기독교신자들이 겪는 개인적 종말(죽음) 앞에 자신의 믿음과 삶의 경험, 희망과 현실 간의 긴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확고한 인식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발생하며, 이런 종말론적 상황, 종말론적 인식 등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Davie(2015: 39-53)는 ‘확산적 기독교’(diffusive Christian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으로 인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는 충분한 동기부여와 그로써 양질의 기독교신앙 확산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로 보건데, 전쟁이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동기부여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장병들의 신앙

행태는 소위 ‘속하지 않고 믿는 것’(believing without belonging)으로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신앙을 갖거나 가지려는 터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Davie(2015: 39-53)는 어떤 상황에서도 군내 무신론자 또는 반신론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군의 위기상황이나 전쟁/전투 상황에서는 군종목사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상당부분 감소되고, 군종목사에 의한 영적 지지/지원을 무시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휘관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 분석했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에 있어서도 목사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Davie(2015: 39-53)는 개인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종교적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교적 행위나 신앙을 통해 종교적 만족을 얻으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일컬어 ‘대리적 종교’(vicarious religion)라고 했다. 이 개념은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행위를 통해 종교적 의미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활동은 개인적인 믿음과 신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일부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를 대신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즉, 자신은 기독교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군인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다른 장병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도록 요청하거나,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을 통해 종교적인 지식, 위로, 의미, 희망 등을 얻으며, 자신의 종교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III.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

대부분 군종목사의 상담에 대한 이해의 기반은 입대 전, 소속교회에서의 사역훈련 가운데 몇 차례 경험할 수 있는 임의적인 상담사역(대부분은 수련감독자에 의한 수퍼비전이 없는 상담)이 대부분이고, 소속교단의 목사양성과정인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목회)상담학관련 한두 과목을 통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및 수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실습이 포함된 학교가 많아 목사가 되기 전,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상담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의 경우는 CPE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한 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군종목사로 임관하는 순간까지 CPE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해 본 목사들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CPE는 환자, 가족 및 기타 임상관련된 사람들에게 심리영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목사를 임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군종목사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수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한국군에는 이른바 'K-CPE'라 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군종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필수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CPE 프로그램은 상담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학습과 환자상담의 임상실습 및 수련감독이 모두 포함된다. CPE를 통해 훈련받은 군종목사는 종종 군 병원에 보직을 받아 건강관리팀의 일원이 되어 장병들에게 심리영적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초군반(OBC), 고군반(OAC)에 상담관련 과목의 교육시간을 확장하는 것과 상담자교육 및 임상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군종목사가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군종목사 내 수련감독급 상담사를 양성하여 이 일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국방부나 각군 본부 군종실 등 정책부서에서는 군종목사가 심리영적 상담자로서 장병상담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들이 새로운 의학지식 및 기술과 기법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회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종목사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담학회에 참석하여 꾸준히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군 본부 군종실에서 비용과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면, 군은 군종목사들이 전반기에는 일반상담학회(한국상담학회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 및 교육연수를 받고, 후반기에는 기독교/목회상담학회에 참석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상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방부 훈령 제1818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제3항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군 내외 각종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종장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장이 규정화되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장병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군종목사는 ‘비임상 제공자’(non-clinical provider)로 분류된다. 군종목사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심리영적 문제의 전문가로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망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비롯한 장병들의 임상적인 증상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Seddon, et al, 2011: 1357-61).

근래 미육군 군종목사들 가운데는 장병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AAMFT)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 결혼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임상수련을 받은 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Norton & Soloski, 2015: 21-39). 군종목

사 재직 중,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이기는 해도 장기복무 군종목사들에게는 이런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Ritchie, 2011: 163-70).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설픈 전문가 흉내를 낸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은 목사는 어떤 종류의 상담도 해서는 안 된다.”(Patton, 2015)고 강경한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군종목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임상수련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아 유능한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전문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자신의 인정된 능력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또는 조언하지 않는다.”(Norton & Soloski, 2015: 21-39)고 명시하고 있다.

Harrison(2017: 33)은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 장병의 발달, 성격,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서는 군종목사의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군종목사는 높은 수준의 심리영적 문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당한 기법의 상담학적 문제해결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IV. 닫는 글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활동 동향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가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방안을 모색한 연구였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말과 같이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최근에는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될만큼 상담적 임무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군은 군종목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군 군종목사의 종교연락장교 임무는 한국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군 군종목사들도 대민업무에서 더욱 전문성이 강조된 상담자로서 종교관련 민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전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에게 상담능력을 발휘하여 위로와 안위

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도록 하고 기독교신앙을 수용하게 하는 목사 고유의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는 물론, 상담을 통해 은연 중에 목사 고유의 사명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사역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으로 연구자는 군종장교 양성과정(초군반)이나 직무능력향상과정(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과 교육시간의 확장 및 상담자교육, 임상훈련 및 CPE 등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군종목사들이 일반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 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 받는 것을 군종목사의 상담직무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미군처럼 재직 중에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군종목사들이 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향후,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군종목사의 상담과 정신건강전문가들(정신건강 의학과 군의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비교하여 장병들이 지각하는 상담만족도 및 변화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군종목사 상담의 장점이 나타난 경우에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신장하는 자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군종목사가 활용하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어떤 신앙요소가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해결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한 연구결과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Allen, J. P., Nieuwsma, J. A. & Meador, K. G. (2014). The Role of 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Chaplains in the Treatment of Alcohol Problems. *Pastoral Psychology*, 63(1), 1-11.
- Carson, M. L. S. (2018). Pastor as Counselor: Wise Presence, Sacred Conversation. *Journal of European Baptist Studies*, 18(2), 64-65.
- Chaika, O. & Dragan, O. (2022). Chaplain Service Pastor as A Special Kind of Public Service Military Officer in The Ukrainian Army Introduction. *Kościół I Prawo*, 11(2), 213-29.
- Cooper, D. C., Evans, C. A., Chari, S. A., Campbell, M. S. & Hoy, T. (2023).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verlapping Role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Psychological Services*, 20(1), 56-65.
- Davie, G. (2015). The Military Chaplain: A Study in Ambigu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15(1), 39-53.
- Eleonora, B. (2007).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Psychotherapy Practice: Training the Trainer.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44(1), 54-65.
- Gutkowski, S. & Wilkes, G. (2011). Changing Chaplaincy: A Contribution to Debate over the Roles of US and British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Religion, State and Society*, 39, 111-24.
- Harrison, G. (2017).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Koenig, H. G. (2012). Religious versus Conventional Psychotherapy for Maj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Medical Illness: Rationale, Methods, and Preliminary Result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460419, 1-11.
- Lee, W. S., Burke, C. J. & Crayne, Z. M. (2005). *Military Chaplains as Peace Builders: Embracing Indigenous Religions in Stability Operations*. Alabama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 Mason, K. (2014). *Preventing Suicide: A Handbook for Pastors, Chaplains and Pastoral Counselor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Mendenhall, M. (2009). Chaplains in Mental Health.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12(1), 8-13.
- Norton, A. M. & Soloski, K. L. (2015). Officer, Chaplain, Therapist: A Feminist Perspective on the Challenges of Supervising U.S. Army Chaplain-Therapist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7(1), 21-39.

- Patterson, E. (Ed.) (2014).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Patton, J. (2015). *Pastor as Counselor: Wise Presence, Sacred Conversation*. Grand Rapids: Abingdon Press.
- Phillips, R. (2004).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Contours and Content of Ministry. *Quarterly Review*, 24(1), 47-58.
- Ritchie, E. C. (Ed.) (2011). *Combat and Operational Behavioral Health*. Fort Detrick. ML.: Borden Institute.
- Saunders, J. (2023). Spiritual Readiness: Essentials for Military Leaders and Chaplains. *Health & Social Care Chaplaincy*, 11(1), 133-35.
- Seddon, R. L., Jones E. & Greenberg, N. (2011).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Military Medicine*, 176(12), 1357-61.
- Stahl, R. Y. (2017). *Enlisting Fa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t, J. E. (2014). *Bringing God to Men: American Military Chaplains and the Vietnam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인가?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하여-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전요섭 (성결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가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근래에는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될만큼 상담적 임무가 부각되고 있다.

(1) 미군은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미군 군종목사의 종교연락장교 임무는 한국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한국군 군종목사들도 대민업무에서 더욱 전문성이 강조된 상담자로서 종교관련 민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비전 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3)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에게 상담능력을 발휘하여 위로와 안위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고 기독교신앙을 수용하도록 목사 고유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을 통해 목사 고유의 사명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 사역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연구자는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으로 군에서 CPE가 더욱 강조, 강화되어야 하고, 양성과정(초군반)이나 직무능력향상과정(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과 교육시간의 확장 등 상담자교육 및 임상 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군종목사들이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 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받는 것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미군 처럼 재직 중에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군종목사가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군종목사, 기독교상담, 목회상담, 군상담, 정신건강, 미군